

#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박 장 희  
박사과정 조 윤 주

Dept. of Home-Economics, Korea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ang-Hee Park

Doctoral Course : Yoon-Ju Cho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0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A-san. The romantic attachment was assessed by the 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Brennan *et al.*, 1998)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s were assessed by KIIP (Cho & Park, 2005).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4.5% of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fearful, 26.8% as secure, 18.6% as dismissing, and 10.0% as preoccupied.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romantic attachment groups was found with the fearful group reporting a higher level of interpersonal problems than the secure and dismissing groups. Gender was a significant factor on independent problem in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avoidance and anxiety of romantic attachment dimens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ce of romantic attachment dimension and overgenerous in interpersonal problems. Avoidance of romantic attachment dimension in female stud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vergenerous in interpersonal problems.

**주제어(Key Words):**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 대인관계문제(Interpersonal problems)

### I. 서론

청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대학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낭만적 관계를 경험하는 일이 증가하면서(Laursen

& Williams, 1997) 낭만적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를 대신하는 중요한 지원 자원으로 대두되어진다(Furman & Buhrmester, 1992). 이 시기 낭만적 관계는 연합, 성적 재생산, 애착과 보호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Furman &

Corresponding Author: Yoon-Ju Cho, Department of Home-Economics,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2320 E-mail: ycho4@korea.ac.kr

Wehner, 1994: 168-195), 성인기 만성적인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Weiss, 1982: 171-194)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성인에착에서 이 시기 낭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애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 중반 Hazan과 Shaver(1987)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성인기 낭만적 관계가 아동기 애착과 유사한 애착형성 과정이며, 아동이 위협에 처해서 양육자로부터 안전과 위안을 얻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양육자를 안전기저로 활용하는 것처럼 성인도 낭만적 상대로부터 안전, 편안함, 보호의 자원을 얻고 상대를 안전기저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성인들은 낭만적 상대가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분리될 때 강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며(Fraley, Davis & Shaver, 1995; Vormbrock, 1993), 낭만적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성인일수록 긍정적인 정서(Simpson, 1990)와 높은 수준의 신뢰감과 책임감을 보이고, 높은 관계만족도와 상호 의존적인 특성들을 보고함으로써(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성인기 낭만적 관계가 아동기 애착과 유사한 애착역동체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인기 낭만적 관계가 애착관계라는 점에서 아동기 애착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아동과 성인은 발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착을 나타내는 표상에 차이가 있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이 미숙한 아동의 애착표상은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의 애착은 낯선 상황 실험 처럼 사건에 근거하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애착 표상은 인지적 표상을 통해서도 나타나며, 이것이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기 낭만적 애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지적 표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Furman & Simon, 1999: 75-98). 이에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기 낭만적 관계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기대를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은 성인기 애착유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아동은 양육자와의 관계를 이후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는 초기 애착관계로 내면화하며, 이런 내면화된 애착표상들을 특징 짓는 것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라는 Bowlby의 이론에 기초한다. <그림 1>에서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기대를 말하는데,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자기모델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불안'으로 부정적인 타인모델은 회피적인 행동과 관련 있다고 보아 '회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46-76). <그림 1>에서 CellI의 안정형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수용적이고 반응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조합된 것으로 이 유

		자기모델(불안)	
		긍정(낮음)	부정(높음)
타인모델 (회피)	긍정 (낮음)	CELLI 안정형 친밀과 자율을 편안해 함	CELLII 몰입형 관계에 몰입함
	부정 (높음)	CELLIV 거부형 친밀한 상호의존을 거부함	CELLIII 두려움형 친밀을 두려워함 사회적으로 회피함

<그림 1> 성인기 애착의 4유형 모델

형의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와 자율을 편하게 여긴다. CellIII의 몰입형은 자신이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조합된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수용하고자 하며 관계에 몰입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CellIII의 두려움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나에게 거부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조합된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CellIV의 거부형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긍정적인 인식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조합된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높은 자존심과 독립심을 유지함으로써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다.

성인기 애착의 4유형 모델은 성인기 낭만적 애착에 대한 다른 모델들(Brennan *et al.*,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17-52)과 통합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들(Brennan *et al.*, 1998; Carver, 1997; Feeney, 1999: 355-377)로부터 성인기 애착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지적된다. 먼저, 이 모델은 모든 문화에서 안정형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라는 애착지향의 보편성(Main, 1990; van IJzendoorn & Sagi, 1999: 713-734)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에 따라 사회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애착지향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율과 독립심을 강조하는 문화와 구성원들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지향하는 애착특성이 다를 수 있고, 성에 개방적인 사회와 폐쇄적인 사회에서 지향하는 애착특성에는 그 사회의 성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다. 최근 애착지향성의 문화적 보편성을 살펴본 연구들은(Wang & Mallinckrodt, 2003; Wei, Russel, Mallinckrodt & Zakalik, 2004) 애착특성이 문화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는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애착이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유형의 경향성을 탐색해 보고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특성에 나타난 문화적 특수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모델은 각각의 애착유형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할 뿐 아니라 한 유형 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애착지표는 여러 애착유형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의 애착유형도 개인의 수준에 따라 여러 하위유형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Fraley & Waller, 1998; 77-140). 이로 인해 각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설득력 또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Brennan 등은(Brennan *et al.*, 1998)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애착특성들을 유형으로 보는 방법 외에 연속적인 차원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낭만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학 시기는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된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고립감에 취약한 시기(Parlee, 1979)로 인식되어지는 만큼 폭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얻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로 대두되어진다. 고립감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열등감 뿐 아니라 우울, 절망, 슬픔 등의 정서적 부적응을 심화시키고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 시켜 관계회피나 불안과 같은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권석만, 1995). 이때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 병리증상을 유발하게 되고(Pincus & Wiggins, 1990;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이러한 부적응적인 증상들은 다시금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고 심화시키는(Horowitz & Vitkus, 1986)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개인의 활동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대학시기에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는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Horowitz & Vitkus, 1986; Horowitz, 1996)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발달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권석만, 김지영, 2002).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형성하면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자기와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여 대인관계상황에서 대응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인지적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Kiesler, 1996; 권석만, 김지영, 2002 재인

용). 따라서 한 개인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낭만적 관계는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낭만적 관계는 중요한 지원체제로 인식되어지는 만큼(Furman & Buhrmester, 1992; Shulman & Kipnis, 2001), 낭만적 관계에서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에 대한 이해는 이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낭만적 애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Bäckström & Holmes, 2001; Diehl, Elnick, Bourbeau & Labouvie-Vief, 1998; Gallo, Smith & Ruiz, 2003) 낭만적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특성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내포하고 개인의 성격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낭만적 관계의 애착특성은 정서조절뿐 아니라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고(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Wei, Vogel, Ku, & Zakalik, 2005), 나아가 사회적 지원체계, 의사소통능력, 관계 만족도와 같은 대인관계 특성과도 관련이 있음(Anders & Tucker, 2000; Pietromonaco & Barrett, 2000)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시기의 중요한 지원체제라 할 수 있는 낭만적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특성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시기의 낭만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건강한 대인관계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D대, K대, S대에 재학 중인 1, 2,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평균 22.87세)		90(40.9)
	여학생(평균 20.64세)		130(59.1)
학 년	1학년		40(18.2)
	2학년		84(38.2)
	3학년		40(18.2)
	4학년		48(22.3)
	무응답		7(3.2)
데이트 경험	과거에 경험 있음		107(48.6)
	현재하고 있음		77(35.0)
	경험 없음		33(15.0)
	무응답		3(1.4)
데이트 기간	해당사항 없음(경험 없음)		33(15.0)
	3개월 미만		48(21.8)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3(10.5)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8(17.7)
	1년 이상 - 2년 미만		31(14.1)
	2년 이상		46(20.9)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아버지	어머니
		24(10.9)	33(15.0)
	고 졸	83(37.7)	120(54.5)
		73(33.2)	47(21.4)
	대학원 졸	30(13.6)	9(4.1)
무응답		10(4.5)	11(5.0)
부모의 직업	무직 및 기타	22(10.0)	129(58.7)
	생산노무직	20(9.1)	17(7.7)
	판매/서비스직	35(15.9)	38(17.3)
	사무직	60(27.3)	10(4.5)
	전문기술직	32(14.5)	20(9.1)
	관리/전문직	51(23.2)	6(2.7)

3, 4학년 학생과 충남 아산시 소재 S대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Brennan et al., 1998)를 본 연구자들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3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척도로, 불안과 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성됐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의 애착유형은 불안과 회피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비계층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여 안정형, 몰입형, 두려움형,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애착유형별 특성은 성인기 애착의 4유형 모델의 특성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불안이 Cronbach'  $\alpha$ =.84, 회피가 .81로 나타났다

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2) 한국판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대인관계문제(김정옥, 권석만, 정남은, 2000)를 요인 분석하여 재구성한 조윤주와 박장희(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107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의 6개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문항은 역 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비사교성이 Cronbach'  $\alpha$ =.94, 불신-냉담이 .86, 비주장성이 .92, 지배-예민이 .93, 의존성이 .79, 과관용이 .67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문제 전체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척도내용에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못한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에 들어갔다.

본 조사는 서울시내 소재 3개 대학교, 충남 아산시내 소재 1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연구자들이 직접 교양과목 시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설문지는 총 26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234부가 회수되어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여 실제분석에는 220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X<sup>2</sup>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들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낭만적 애착유형의 경향성

대학생들의 성인기 낭만적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 두려움형(44.5%), 안정형(26.8%), 거부형(18.6%), 몰입형(1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7.27, p<.001$ ).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두려움형과 몰입형이 많았던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안정형과 거부형이 많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인기 낭만적 애착의 빈도와 백분율 및  $\chi^2$  검증결과

	안정형(%)	거부형(%)	두려움형(%)	몰입형(%)	$\chi^2$ 검증
남학생	21(23.3)	13(14.4)	41(45.6)	15(16.7)	8.93*
여학생	38(29.2)	28(21.5)	57(43.8)	7(5.4)	
전 체	59(26.8)	41(18.6)	98(44.5)	22(10.0)	

\* $p<.05$

#### 2. 낭만적 애착유형 및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성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 및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비사교성	낭만적 애착유형(A)	5351.16	3	1783.72	9.54***
	성(B)	38.53	1	38.53	.21
	A×B	357.70	3	119.23	.64
	오 차	39624.18	212	186.91	
	전 체	46225.18	219		
불신-냉담	낭만적 애착유형(A)	1786.51	3	595.50	7.46***
	성(B)	105.39	1	105.39	1.32
	A×B	207.14	3	69.05	.87
	오 차	16916.27	212	79.79	
	전 체	19088.60	219		
비주장성	낭만적 애착유형(A)	3263.09	3	1087.70	6.26***
	성(B)	649.66	1	649.66	3.74
	A×B	396.82	3	132.27	.76
	오 차	36814.75	212	173.65	
	전 체	41395.73	219		
지배-예민	낭만적 애착유형(A)	10071.75	3	3357.25	12.74***
	성(B)	449.53	1	449.53	1.71
	A×B	1595.79	3	531.93	2.02
	오 차	55873.69	212	263.56	
	전 체	67834.78	219		
의 존 성	낭만적 애착유형(A)	420.84	3	140.28	5.67**
	성(B)	233.08	1	233.08	9.41**
	A×B	13.21	3	4.40	.18
	오 차	5249.81	212	24.76	
	전 체	6001.80	219		
과 관 용	낭만적 애착유형(A)	297.96	3	99.32	5.61**
	성(B)	3.39	1	3.39	.19
	A×B	82.17	3	27.39	1.55
	오 차	3753.14	212	17.70	
	전 체	4175.18	219		
대인관계문제 (전체)	낭만적 애착유형(A)	85328.41	3	28842.80	12.08***
	성(B)	4604.72	1	4604.72	1.96
	A×B	8926.74	3	2975.58	1.26
	오 차	499304.40	212	2355.21	
	전 체	600729.70	219		

\*\* $p<.01$ , \*\*\* $p<.001$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이들의 낭만적 애착유형(Wilks'  $\lambda=.72, F=3.96, p<.001$ )과 성(Wilks'  $\lambda=.91, F=3.57, p<.01$ )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Wilks'  $\lambda=.92, F=1.03, p=.42$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낭만적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대인관계문제(전체)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낭만적 애착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전체)는 두려움형이 안정형과 거부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비사교성과 불신-냉담은 두려움형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보다 높았으며, 비주장성은 두려움형이 안정형과 거부형보다 높았다. 지배-예민은 두려움형과 몰입형이 안정형과 거부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존성과 과관용은 두려움형이 거부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의 주효과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 중 의존성에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들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들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낭만적 애착유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뿐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기 분리하여 각 성별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은 대인관계문제(전체)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불안과 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았다. 불안이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회피가 부정적인 타인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낭만적 애착관계에서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형성한 대학생들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불안은 남녀 대학생들 모두에게서 모든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을 불문하고 대학생들은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신뢰하지 못

<표 4>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	대인관계문제(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남학생	안정형	49.90(13.13)	36.33( 8.24)	47.62(12.86)	70.71(18.21)	19.24(4.99)	9.19(4.26)	243.00(53.67)
	몰입형	45.67(11.04)	35.60( 8.77)	49.80(14.85)	77.40(22.26)	19.13(7.35)	19.87(4.10)	247.47(56.38)
	두려움형	61.15(17.21)	44.02(10.67)	56.22(13.74)	84.20(13.95)	20.73(4.37)	21.90(4.71)	288.22(53.04)
	거부형	50.38(12.26)	39.46(11.53)	48.15(14.25)	70.46(17.51)	17.00(4.73)	18.62(3.91)	244.08(56.97)
	합계	54.39(15.88)	40.17(10.51)	51.98(14.13)	77.93(17.88)	19.58(5.23)a	20.46(4.54)	264.50(57.68)
여학생	안정형	47.03(11.70)	38.26( 7.97)	53.45(11.46)	71.29(16.56)	20.89(4.13)	20.68(4.05)	251.61(45.14)
	몰입형	51.71(11.74)	41.71(11.18)	59.86(12.42)	95.14(19.28)	22.29(7.59)	21.71(3.95)	290.43(46.59)
	두려움형	56.79(13.00)	43.77( 7.16)	59.00(12.77)	83.23(12.16)	23.49(4.89)	20.86(3.44)	287.14(36.48)
	거부형	48.46(14.22)	38.46( 9.35)	47.36(14.30)	67.14(19.42)	19.54(4.90)	17.54(5.17)	238.50(55.37)
	합계	51.82(13.48)	40.91( 8.46)	54.86(13.40)	76.92(17.46)	21.82(5.06)b	20.14(4.25)	266.45(48.58)
전체	안정형	48.05(12.19)a	37.58( 8.05)a	51.37(12.19)a	71.08(17.01)a	20.31(4.48)ab	20.15(4.16)ab	248.54(48.07)a
	몰입형	47.27(11.24)a	37.55( 9.77)a	52.68(14.47)ab	83.05(22.54)b	20.14(7.40)ab	20.45(4.06)ab	261.14(56.20)ab
	두려움형	58.61(14.98)b	43.88( 8.75)b	57.84(13.19)b	83.63(12.88)b	22.34(4.85)a	21.30(4.03)a	287.59(43.92)b
	거부형	49.07(13.50)a	38.78( 9.95)a	47.61(14.11)a	68.20(18.68)a	18.73(4.93)b	17.88(4.78)b	240.27(55.23)a
	합계	52.87(14.53)	40.60( 9.34)	53.68(13.75)	77.33(17.60)	20.90(5.24)	20.27(4.37)	265.65(52.37)

a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5>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의 두 차원들과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결과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	대인관계문제(전체)
		남학생	불안(자기모델)	.27*	.22*	.32**	.36**	.28**
	회피(타인모델)	.29**	.26*	.20	.18	.04	.12	.25*
여학생	불안(자기모델)	.32**	.32**	.36**	.52**	.34**	.21*	.49**
	회피(타인모델)	.21*	.20*	-.04	.13	.13	-.18*	.13
전체	불안(자기모델)	.30**	.27**	.33**	.46**	.30**	.25**	.42**
	회피(타인모델)	.24**	.23**	.07	.15*	.10	-.05	.18*

\* $p<.05$ , \*\* $p<.01$

해 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한편 회피는 남녀 대학생들 모두에게서 비사교성과 불신-냉담의 문제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여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비사교적인 문제와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는 여학생들의 과관용의 문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여학생들이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할수록 과관용의 문제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두려움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던 서구사회의 일련의 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Mikulincer, 1995)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낭만적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성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을 억제하고 금기시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책임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제약이나 입시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대학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성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이성간의 낭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경험일 수 있다. 두려움형은 자신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여 낭만적 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려움형이 많았던 결과는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낭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데이트 특성을 살펴보면 데이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64.1%로, 이 중 50.0%는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낭만적 관계가 애착체계로 완전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2년이 걸린다는 연구들(Fraley & Davis, 1997; Hazan & Zeifman, 1994)과 관련지어보면 이들의 데이트 기간은 낭만적 관계가 안정적

인 애착체계로 작용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낭만적 관계가 안정된 애착체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제약이 많았던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유로운 이성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탐색적인 성향을 갖기 쉬운 시기적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두려움형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낭만적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애착유형이라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두려움형과 몰입형이 많았던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안정형과 거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 애착 유형에서 두려움형과 몰입형은 안정형과 거부형보다 불안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낭만적 애착관계에서 남학생은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하여 불안이 높은 성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긍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하여 불안이 적은 성향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방식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방식에 있어 남성은 여성을 이끌어나가고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상대에게 의지하고 지지와 보호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역할 특성들은 사랑방식에서도 반영되어 남성은 상대에게 무조건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을 많이 하는 반면(장휘숙, 2002; Feeney & Noller, 1990), 여성은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장휘숙, 2002; Feeney & Noller, 1990)과 소유적·의존적인 사랑(Hendrick & Hendrick, 1986)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낭만적 관계에서 남학생들은 상대를 보호하는 존재로서의 역할기대를, 여학생들은 상대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는 존재로서의 역할기대를 갖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낭만적 애착에서 '나는 사랑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로 대변되는 불안, 즉 자기표상의 측면에서 남학생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여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쉽도록 이끌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경향에서는 낭만적 애착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때 성의 주효과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의존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낭만적 애착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낭만적 애착유형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두려움형이 안정형과 거부형보다 대인관계문제(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불안과 회피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두려움형은 거부형과 안정형보다 불안이

높고 안정형보다 회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낭만적 애착에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지나치게 반응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Wei *et al.*, 2005). 또한 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인식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안전기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원을 구하고자하는 욕구가 낮아 문제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Brennan & Shaver, 199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안과 회피의 부정적인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두려움형은 다른 애착유형들에 비해 대인관계에 있어 더 많은 문제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여러 연구(Kobak & Hazan, 1991; Mikulincer & Nachshon, 1991; Simpson *et al.*, 1996; Tucker & Anders, 1998)에서 두려움형은 표현, 자기 노출, 대인 민감성, 갈등해결, 우호적인 조정능력 등의 많은 부분에서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두려움형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과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보다 안정하게 애착된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지각하는데 일조했으리라고 보여 진다. 이때 두려움형이 불안으로 구분되는 모든 유형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회피로 구분되는 유형에서는 안정형과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에서 볼 때 불안의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서 더 부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과잉 반응이나 과잉행동전략이 회피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반응 억제나 비활성화전략(Kobak & Sceery, 1988)에 비해 대인관계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두려움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사교성과 불신-냉담의 문제가 높았다. 두려움형이 불안과 회피가 모두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비사교성과 불신-냉담의 문제가 불안과 회피의 부정적인 성향을 모두 반영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즉, 이는 불안과 회피에 내재되어있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들이 대인관계 상황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비사교적인 문제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불신-냉담의 문제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비주장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문제(전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형이 거부형과 안정형보다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

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의 성향이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부족으로 인한 비주장적인 문제로, 상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회피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억제하는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배-예민의 경우에는 두려움형과 몰입형이 안정형, 거부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존성과 과관용의 경우에는 두려움형이 거부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불안의 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지배-예민의 문제와 의존성과 과관용의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배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배려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보상하고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정서적인 반응성을 보이며, 이것이 대인관계문제에 이어졌던 결과(Wei *et al.*, 2005)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성 역할 습득에서 남성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격려 받는 반면, 여성은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특성을 격려 받기 쉽다(김희진, 1995; 이옥, 장혜경, 1995)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낭만적 애착에서 불안과 회피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전체)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불안과 회피는 각각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의 성향이 높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여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의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들일수록 정서경험과 대인관계에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하고(Collins & Read, 1994) 정신모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원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한다(권아현, 2000)는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기 애착유형이 대인관계과정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만큼(Robert, Gotlib & Kassel, 1996), 낭만적 관계에 대한 불안과 회피의 애착특성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들이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남녀대학생들은 모두, 낭만적 관계에서 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불안이 높다는 것은 낭만적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가치롭고 신뢰할만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낭만적 관계로부터 부정적으로 자기표상을 형성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이 때 자기표상은 자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아상은 자존감, 정서, 대인관계와 같은 개인행동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arkus, 1990).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신이 사랑할 가치가 있고 상대에게 의지와 안전기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부정적인 자기표상의 성향(Shaver & Hazan, 1988)은 대인상황에서 자신감부족이나 부적응적인 감정, 행동들을 이끌어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낭만적 관계에서 회피는 남녀 대학생들 모두에게서 비사교성과 불신-냉담의 문제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 회피가 높을수록 불신-냉담과 비사교성의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낭만적 관계에서 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Shaver & Hazan, 1988) 불신-냉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Simpson, 1990)을 제시해준다. 또한 회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낭만적 상대가 의지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만큼(Shaver & Hazan, 1988), 대인상황에서도 위축되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비사교적인 문제와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회피가 과관용적인 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여 낭만적 관계에서 회피가 높은 여학생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배려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과관용의 문제는 오히려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학생들의 여성적 특성(Gilligan, 1982)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여학생들은 성역할 발달특성상 관계를 중요시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을 가지므로, 관계지향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이러한 성향은 자신보다 남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여 과 배려하는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려는 성향을 지닌다(Kobak & Sceery, 1988). 이러한 성향은 회피가 높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관계지향적인 특성에 기인할 수 있는 지나친 배려지향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해출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특성을 고찰해 보고, 이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청년에서 성인으로 발달 해가는 시기의 건강한 대인관계 발달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의 낭만적 애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성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석만(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권석만, 김지영(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아현(2000).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운, 권석만, 정남운(2000).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 측 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김희진(1995).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이 옥, 장혜경(1995).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 관련변인. *교육연구*, 4, 39-58. *덕성여자대학교 교육연구소*.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조운주, 박장희(2005). 대학생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3), 89-108.
- Anders, S. L., & Tucker, J. S. (2000). Adult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7(4), 379-389.
- Bäckström, M., & Holmes, B. M. (2001). Measuring adult attachment: A construct validation of two self-report instrum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2(1), 79-86.
- Bartholomew, K., & Horowitz, I.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Simpson, J. A., & Rholes, W. 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The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 Carver, C. S. (1997). Adult attachment and personality: Converging evidence and a new mea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8), 865-88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Kingsley.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656-1669.
- Feeney, J. A.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New York: Guilford.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raley, R. C., & Davis, K. E. (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2), 131-144.
- Fraley, R. C., Davis, K. E., & Shaver, P. R. (1995). *Attachment behavior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Simpson, J. A., & Rholes, W. 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The Guilford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Furman, W., & Simon, V. (1999).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B.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G. P. Gullota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Gallo, L. C., Smith, T. W., & Ruiz, J. M. (2003).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Adult Attachment Style: Circumplex Descriptions, Recalled Developmental Experiences, Self-Representations,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1(2), 141-181.
- Gilligan, C. (1982). New maps of development: New visions of matur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2), 199-212.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and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Jessica Kingsle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Jessica Kingsley.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orowitz, I.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orowitz, I. M., &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Sons; 권석만, 김지영(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

-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재인용.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 135-146.
- Laursen, B., & Williams, V. A. (1997). Perceptions of interdependence and closeness in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winter(78)*, 3-20.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rategies of attachment and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rkus, H. (1990). Un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241-253.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1203-1215.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321-331.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Parlee, M. B. (1979). The friendship bond: Psychology Today's survey report on friendship in America. *Psychology Today*, 13(4), 43-54.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55-157.
- Pincus, A.,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4), 342-352.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2), 310-320.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5, 473-501.
- Shulman, S., & Kipnis, O. (2001).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 look from the future. *Journal of Adolescence*, 24(3), 337-351.
- Simpson, J. (1990).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899-914.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J. (1993).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in circumplex and five-factor space: Explorations with a 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5(1), 41-52.
- Tucker, J. S., & Anders, S. L.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nonverbal closeness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2), 109-124.
- van IJzendoorn, M. H., & Sagi, A. (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Universal and contextual dimension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New York: Guilford.
- Vormbrock, J. K. (1993). Attachment theory as applied to wartime and job-related marital sepa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4(1), 112-144.
- Wang, C. C., & Mallinckrodt, B. (2003). *Differences between Taiwanese and U. S. cultural beliefs about ideal adult attachmen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Zakalik, R. A. (2004). Cultural Equivalence of Adult Attachment Across Four Ethnic Groups: Factor

- Structure, Structured Means, and Associations With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08-407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 (2006년 3월 31일 접수, 2006년 6월 18일 채택)